

자살생각으로 고통 받는 사람의 영적 레질리언스: 사회복지실천적 관점에서 욕기 내용분석

하 정 미¹⁾ (부산장신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겸임교수)

최 중 화 (부산장신대학교 신학과 초빙교수)

송 영 지²⁾ (부산대학교 박사수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욕기에서 고난을 겪은 욕의 경험을 사회복지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난을 겪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회사회사업의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서 표준새번역 성경을 기초로 하여 욕기를 사회복지실천의 관점인 통합주의적 방식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 분석 결과 92개의 의미가 구성되었고(formulated meaning), 22개의 주제(Theme)와 '뜻밖에 닥친 감당치 못할 고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심판적 태도',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터짐', '영적 레질리언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전인적으로 성장됨'이라는 6가지 주제 묶음(Theme cluster)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욕이 고난 속에서 자살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강점으로 영적 레질리언스가 드러났다. 여기서 욕의 레질리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기독교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 요인을 탐색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일 것이다.

1) 주저자

2) 교신저자

주제어: 자살생각, 레질리언스, 영성, 욕기, 내용분석

I. 서론

현대 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환경들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은 심각한 외부적·내부적 갈등과 자아의 상실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심각하게 반영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자살률의 증가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살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2010년 사망원인통계'에서는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이 31.2명으로 2000년 대비 무려 130.2%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 이렇듯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을 통과시켜 올 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자살'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 그만큼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살이라는 현상이 믿지 않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대중매체를 통해서 연예인의 자살 소식을 접하였을 때 간혹 그 사람이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면 대중들은 '기독교인도 자살을 하는구나!' 하는 놀라움과 '어떻게 기독교인이 자살을 선택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 내에서조차 자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명확한 기준과 가치관을 제시해주는 경우는 드물기에 왜곡된 지식만을 동원하여 추측만으로 사고를 굳혀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게 된다.

한편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막연히 어

는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자신의 자살생각을 해결하려고 상담사나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시도해보려 하지 않는다. 만약 자신이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에 병이 있는 사람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바라 볼 편견에 가득 찬 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 죽고 싶을 만큼 힘들더라도 자신의 문제들을 숨기고, 심지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Michel, Jobes, Leenaars, Maltsberger, Dey, and Valach, 2012).

그런데 자살생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치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기독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목회적 돌봄과 상담은 때때로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Carlin, 2007), 이들에게 더욱 상처를 주기도 한다. 특히 우울한 기독교인들은 성경말씀처럼 늘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성경말씀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정죄하고 이로 인해 더 깊은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김재연, 2007). 이처럼 그동안 기독교 내에서는 자살과 관련하여서는 정죄의 시각에 치우쳐, 자살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자살은 '영원히 사함 받을 수 없는 죄',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와 같은 생각들로 깊이 각인되어 감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는 자살 생각을 가진 자와 그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돌봐주지 못하고 심판적 태도로 정죄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품안에서 돌봄을 통한 예방과 치유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며, 자살에 대해 성경이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며, 성경에서 자살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책 가운데 하나인 욕기를 통해 자살생각으로 고통 받는 사람의 레질리언스를 연구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지금까지 욕기에 대한 비교적 많은 학문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연구 모두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적 관점에서 욕기를 분석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고 욕의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실천적 관점에서 욕의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욕이 자살생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긍정적 시각을 강조하는 레질리언스 관점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레질리언스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자신의 삶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살 충동, 혹은 지속적인 자살생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레질리언스를 키워주는 것이 자살 예방을 위한 핵심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욕의 레질리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실천적 요인을 탐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성경 속에서 욕이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자살생각을 극복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 연구 질문은 ‘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었는가?’, ‘욕은 어떻게 자살생각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욕의 세 친구의 위로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욕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계신가?’, ‘결론적으로 욕과 같이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자살생각으로 고통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다.

이러한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 속에서 자살생각을 다루고 있는 욕기 3장과 그 배경이 되는 1장-2장 그리고 욕에 대한 지인들의 반응과 이어지는 욕의 대답(4장-27장)과 하나님의 말씀(38장-41장), 욕의 회개(42장)를 사회복지실천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해석하고, 욕의 상황을 통해 어떻게 자살생각을 극복하는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 과정 속에서 자살생각의 내용과 특성을 이해하고 자살생각에 대한 주변인들

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자살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자살생각을 가진 교인들과, 자살생각에 대해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적인 면에서의 이해와 접근방법, 교회사회사업에서의 자살예방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살의 개념 및 특성

자살을 간단히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³⁾에서는 “자살은 자발적 또는 의도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Durkheim(1897)은 “자살은 희생자 자신이 일어난 결과를 알고 행하는 적극적 혹은 소극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죽음의 사례들에 적용된다(김충선 역, 1994: 18).”고 하였다.

Maris, Berman, 그리고 Silverman(2000)은 자살을 정의하는 네 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사망진단서가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학문적 논의에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와 같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도 자살의 범주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 둘째는 자살은 의도된 것이며, 셋째는 자살은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가한 행위여야 하며, 넷째는 자살은 간접적이거나 수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자살자의 자발성과 의도성은 매우 주관적인 문제이므

3)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8j2297a>

로 타인들은 추측만 가능하며 자기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자살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 사회학, 철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측면의 해석이 시도되었다. Blumenthal과 Kupfer(1990)는 자살행동을 생물학적인 측면, 정서질병, 성격적 특성, 심리사회학적 측면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측면을 하나의 원형으로 볼 때 각 원들이 겹치면서 각각 또는 중복되어 작용하는 자살 이해 모델을 설명하였다(Maris et al., 2000). 최근 자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살을 '실제로 자기 손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것'을 말하는 완결된 자살(completed suicide),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죽지는 않았으며 치료가 가능한 경우'인 치명적이지 않은 자살 시도, '명확하게 자살시도를 하거나 완결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정도의 자살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자살 의도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자살 생각, 그리고 대부분 부분적이며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간접적 자기파괴 행동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Maris et al., 2000).

2. 자살을 설명하는 이론

자살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어느 한 이론으로만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살과 관련된 행동이 정신과적 병력, 신경증, 외상적인 삶의 경험, 자살 행동에 대한 유전적인 취약성, 사회문화적인 위험 요소와 보호 요소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Statham et al., 2006; 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재인용)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자살과 관련된 행동은 어느 한 접근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이해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이론으로 Shneidman의 자살이론, 정신분석 이론, 위기이론, 사회체계이론을 살펴보았다.

1) Shneidman의 자살이론

20세기 후반에 다양한 자살이론들이 등장하였는데 Shneidman의 이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Joiner, 2005). 그는 자살이 좌절된 심리적 욕구(thwarted psychological needs)로 설명될 수 있으며 참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일반적인 심리적·정서적 고통으로 정의되는 psychache라고 하는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pain)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좌절된 욕구의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굴복, 성취, 소속감, 공격성, 자율성, 해방, 의존, 존경, 우월, 과시, 해로움의 회피, 불침범, 돌봄, 질서, 놀이, 거절, 감각, 수치회피, 도움, 이해이다. 그가(1985) 설명한 자살자의 열 가지 공통점은 해답을 구함, 의식의 정지, 참을 수 없는 심리적 고통, 좌절된 심리적 욕구, 희망 없음과 좌절, 양가감정, 압박감, 퇴출, 자살 의도의 의사소통, 일생에 걸친 대처 패턴이다.

2) 정신분석이론

자살을 심리학적 측면에 기초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적 접근은 Sigmund Freud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Berman, Jobes, and Silverman, 2006; Jacobs, 1999; Maris et al., 2000; 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재인용).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자살에 대한 견해는 자살은 미움이나 공격성이 내면으로 향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살 충동은 양가감정을 가지며 내면화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되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충동이 자기 내면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프로이트는 만일 자아가 그 스스로를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자아는 자기 스스로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Shneidman는 이것을 '180도 돌려진 살인'이라고 설명하였다(Maris et al., 2000).

Menninger(1966)는 'Man against Himself'란 저서에서 자살행위를 일으키는 정신역동적인 동기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공격성, 비난, 규탄, 적개심, 파멸, 복수 등으로 이루어진 “죽이고 싶은 의도”이고, 둘째는 피가학성, 자기비난, 자기규탄 등으로 나타나는 “누군가 죽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굴복”하는 마음이고, 셋째는 절망, 공포, 피곤, 낙망, 고통, 질병 등에 의해 촉발되는 “죽고 싶은 의도”이다. 이 세 가지 동기가 사람의 성격과 환경에 따라 자살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3) 위기이론으로 본 자살

위기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접근방법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잘 대처해 나간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심하면 평소의 문제 해결 기술로 대처가 안 되어 평형 상태가 깨지게 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긴장과 불안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위기다. 위기에 처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찾게 되나 미해결 상태에 적응해야 한다. 이때 어떠한 경우든 새로운 평형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 위기의 결과는 평소에 정서적인 지지와 이해를 받아 왔던 사람들에게서 받는 지지의 종류에 달려 있다. 김기태(1998)에 의하면 위기는 “정신사회적 성숙의 연속인 각각의 새로운 발달단계에서 유발되며 우발적으로 발생되기도 하는데, 위기상태는 그 자체가 일종의 병이 아니고 안정상태의 혼란 혹은 생의 전환점인 체계의 불균형상태를 의미한다. Hoff(1995)는 어떤 사람들은 자살이나 또 다른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생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였다. 그가 자살을 설명하며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에서는 상황적, 사회·문화적, 전환적이라는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4) 사회체계이론

Norlin과 Chess(1997)는 사회체계의 기능과 구조를 중심으로 사회체계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사회체계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파슨즈는 모든 사회체계가 직면한 네 가지 기능적인 문제를 발견 하였다. 이러한 공통된 기능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의 수행이나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네 가지 기능적 문제는 적응, 목적달성, 양식 유지, 통합을 말한다.

적응은 내부적 기능이며 외부적 기능인 목표달성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목표달성은 최종상태이다. 양식유지는 내부적 기능이며 영역사이의 통합기능을 성취하는 것을 돕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목표달성과 통합은 둘 다 안정상태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둘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상태이며, 각자는 또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 기능이 상호 의존적이므로 어느 하나라도 경계선 이하로 그 기능이 떨어지면 체계에서 무질서의 과정이 시작된다. 엔트로피는 체계의 경계가 폐쇄적이 되고 무질서와 부정적 에너지가 증가하여 체계가 소멸로 나아가는 상태이다. 역으로 만일 두 가지 기능이 모두 경계선 이상이면 질서 과정은 안정상태에 필수적인 시너지효과의 특징을 나타낸다. 안정상태는 넥엔트로피의 상태이며 그 특징은 에너지와 질서가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이르는 상태를 엔트로피의 상태로 보고 욕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3. 레질리언스 이론

사람은 똑같이 불리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개인마다 살아온 인생궤적이 다른 것은 바로 인생의 위기와 역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동

일한 부정적 생애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과연 어떠한 요인이 역경에 대하여 개인마다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인가? 위험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반응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 ‘레질리언스’이다(강유진, 2004). 레질리언스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 일상적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좌절·실수·외상·역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명백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편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Brooks and Goldstein, 2001).

레질리언스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으로서 ‘상처받지 않음(invulnerabl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레질리언스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유능감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Luthar, 1991). 또한 Walsh(1998)는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인내하고 자정하며 성장해 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한다. 즉, 레질리언스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레질리언스는 개인의 경험을 폭넓게 조명하되 일반적으로 역경에 직면하여 긍정적 적응을 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레질리언스는 역경을 통해 형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호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레질리언스는 단지 생존에 대한 개념이 아닌 스트레스와 경험으로부터 한 단계 나아가 성장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천정웅·김미옥·최명민·노혜련·이용교, 2001).

역동적 과정으로서 레질리언스의 개념을 설명한 ‘레질리언스 지렛대 모

텔'에서는 어떤 과정과 어떤 요인들에 의해 개인의 적응유연성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또 이 모델에서는 레질리언스 영역으로 종교적 활동, 인지적 전략, 사회적 지원, 사회적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Bauman, Adams, Waldo, 2001; 강유진, 2004 재인용). 이처럼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결과는 믿음과 레질리언스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즉 레질리언스는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해 주고 있다(Benard, 2004; Werner and Smith, 1992; Weick and Chamberlain, 2002; 천정웅 외, 2001 재인용)는 점에서 욕의 자살 생각 극복에 중요한 요소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레질리언스 이론은 사람의 연령이나 그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욕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욕의 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인의 우울현상과 심리 및 신앙적 대응에 관한 김재연(2007)의 연구와 기독교 상담학의 관점들 중에서 폴 투르니에의 인격적 대화를 중심으로 욕기를 분석한 임옥화(2010)의 연구,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김옥진(2011)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욕기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욕기와 관련된 국외의 연구로는 Barry(2007)의 연구와 주제별로 분석한 연구들로 폭풍(Storm)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Lux(2000)의 연구, 욕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분석한 Pinder(2007)의 연구, 사회적 소외를 중심으로 분석한 Salakpi(2009)의 연구, 위로(console)를 중심으로 분석한 Roxberg, Brunt와

Silva(2011)의 연구, Happy Ending이라는 욕기의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Aronaff(2011)의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심리상담 관련 이론을 적용한 연구로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한 Carlin(2007)의 연구, 가족치료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Badalamenti(2008)의 연구가 있으며 몇몇 학자들은 욕의 고난에 대한 반응을 정신장애의 증상으로 보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arlin(2007)은 욕의 상태를 우울증으로 보았으며 Horton(2011)은 발달적 외상으로 Haughn(2009)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Roy(1991)는 인간 발달적 관점에서 애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국외의 연구에서도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적 관점에서 욕기를 분석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고 욕의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실천적 관점에서 욕의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욕이 자살생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긍정적 시각을 강조하는 레질리언스 관점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가진 사람의 레질리언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의 한 부분인 욕기를 선택하여 내용분석⁴⁾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의 목적은

4) 일반적으로 내용분석의 대상은 면담기록, 대화, 관찰 프로토콜, 비디오테이프, 서류 등 모든 종류의 기록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Mayring, 2000). 내용분석을 사용할 때 그 목적은 개념적인 형태로 현상을 묘사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내용분석은 질적 또는 양적 데이터를 귀납적 또는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분석과정 모두는 준비하기, 구조화하기, 보고하기의 세 가지 주요한 과정으로 표현된다(Satu et al., 2007).

과학적인 방식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기록된 “원래(raw)”의 현상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하나의 지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분석을 사용하여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실제 분석 단위의 선택, 카테고리 개발, 적절한 내용의 샘플링, 그리고 코딩의 신뢰성 확인이라는 4가지 방법상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Stempel, 1989; Prasad, 2008 재인용).

2. 연구대상과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의 대상으로는 성경의 욕기를 직접문헌으로 하였다. 이렇듯 욕기를 자살연구의 내용분석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 욕기의 처한 상황이 자살생각과 잘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 2) 실제로 욕의 입에서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내용(e.g. 욕기 3장)이 나온다는 점, 3) 또한 욕기의 상당 부분이 친구들과의 3주기 대화로 되어있다는 점으로 이를 통해서 욕기가 본 연구의 콘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욕기와 친구의 3주기에 걸친 대화(욕기 4장-27장)가 구어체가 아니라 시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욕과 친구들의 대화는 실제 인터뷰를 녹취한 것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욕과 친구들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생각들은 상당히 정제된 것임을 말해 주기에, 어려움에 처한 한 인간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는 데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여러 성경번역본들 중 비교적 이해가 쉬운 표준새번역 성경을 기초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킹제임스 버전, 한글개역개정성경 등을 비교하여 원문을 명확히 이해하고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참고하였다. 자료분석은 사회복지실천 관점에서 여러 이론들을 통합주의 방식(integralistic approach)⁵⁾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Norlin과 Chess(1997)의 사회체계이론을 큰 틀로 적용하여 욕의 상위체계를 통한 투

입을 분석하고 Shneidman의 자살이론, 정신분석이론, 위기이론, 레질리언스 이론을 적용하여 욕이라는 개인체계에서의 전환과정과 산출을 분석하였으며 욕 체계의 경계와 친구들과 하나님의 피드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구약성경 분야의 박사 연구자 한 명과 사회복지실천전공이며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 한 명과 사회복지실천 전공의 박사수료 연구자 한 명이 함께 전 연구과정에 참여하여 탈삼각화기법에 기초한 분석 내용 검토를 하였다.

IV. 연구결과

욕기의 내용 분석 결과 92개의 의미가 구성되었고(formulated meaning), 이들 간의 순서와 관계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2개의 주제(Theme)를 발견하였다. 이들 22개의 주제는 또 다시 6가지 주제 묶음(Theme cluster)으로 범주화되었다.⁶⁾

1. 고난: 뜻밖에 닥친 감당치 못할 고난

욕기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주제묶음인 '뜻밖에 닥친 감당치 못할 고난'은 다시 '힘 없고 복 받은 자', '사탄의 참소와 하나님의 허락하심', '재

5) 통합주의적 접근(integralistic approach)은 단지 기술의 혼합을 넘어서는 개념적 또는 이론적 창조를 나타낸다. 이는 하나의 이론보다 결과가 더 풍부해진다는 가정 하에서 두 개 이상의 이론적 접근을 혼합하여 개념적 기초 틀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Norcross and Newman, 1992; 이인숙·하정미, 2009 재인용).

6) 아래의 내용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주제와 의미단위가 성서학적 관점으로 읽는 욕기의 큰 흐름에 거스르지 않는 한 지나치게 자세한 성서학적인 주해는 피하도록 한다.

산, 가족, 건강을 상실함'이라는 3개의 주제로 나누어진다.

1) 흠 없고 복 받은 자

본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정직하여 칭찬받음(1:1, 1:5, 1:8)',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이며 열 자녀를 둔(1:2-4)'이라는 두 개의 의미단위로 구성된다. 욕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동방에서 으뜸 갈 만큼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10명의 자녀를 둔 복 받은 자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를 것을 염려하여 잔치 후에는 하나님께 자식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릴 만큼 신앙이 깊고 신중하였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 욕의 거시체계와 미시체계 모두가 질서와 균형이 잘 잡혀있고 긍정적 에너지가 충분하여, 체계의 안정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온 사탄에게까지 욕을 칭찬하심을 보면서, 욕은 고난이전에는 눈에 드러나는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신실한 인간이었기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원인이 욕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사탄의 참소와 하나님의 허락하심

본 주제는 '사탄이 욕을 비난하며 가진 모든 것을 칠 것을 요청함(1:9-11)', '사탄이 다시 욕의 뼈와 살을 칠 것을 요청함(2:4-5)', '하나님께서 사탄의 두 번 시험을 모두 허락하심(1:12, 2:6)'이라는 세 개의 의미단위로 구성된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욕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탄의 비난은 욕기에서 중요한 문제제기이다. 이 질문은 '인간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겠냐'는 이기적인 인간본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사탄의 참소에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신다. 욕은 모르지만 독자들은 욕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안다. 여기서 드러나는 욕의 고난의 원인은 사탄의 참소와

하나님께서 이를 두 번이나 허락하신 것이다.

3) 재산, 가족, 건강을 상실함

이 주제는 ‘모든 것을 잃음(1:14-17)’, ‘강풍이 모든 자녀들과 식솔들을 앗아감(1:18-19)’, ‘악성종기로 피골이 상접함(2:7-8, 2:20)’,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함(2:9)’이라는 네 개의 의미단위로 나뉜다. 사탄은 욥의 재산, 가족에 대한 고난을 주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탄은 욥에게 신체적 고난을 더하였고, 이에 욥의 아내마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소리 지른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 그의 신앙이 고난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욥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욥의 레질리언스가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체계이론(Norlin and Chess, 1997)과 위기이론으로 접근해 보면 욥이라는 한 개인이 하나의 체계가 된다. 자살 위기는 사회체계적 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대처자원간의 불균형이나 클라이언트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처하는 욕구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에너지가 고갈되고 클라이언트의 안정상태가 위협을 받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욥의 상황은 물질적, 신체적, 인간관계에서의 상실로 인한 상황적 위기⁷⁾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욥의 상황은 고난 이전에는 안정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으나 상위체계인 사탄의 개입에 의해 재산 상실, 모든 자녀의 죽음, 가족과 주변

7) 상황적 위기는 우발적 위기라고도 하며 욕구충족의 본질적인 자원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혹은 예기치 않게 상실됨으로써 유발된다. 또한 사람이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드물고도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나타난다(하정미·이윤수·설연옥·김미경, 2009).

인들의 외면, 특히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그의 아내마저 남편인 욱을 비난함과 같은 심각한 상황적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욱은 건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지만, 전혀 새로운 에너지나 자원의 투입은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것은 욱이라고 하는 한 개인 체계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안정상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엔트로피의 상태에 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고난에 대한 욱의 반응: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움

힘 없고 복 받은 자였던 욱의 고난에 대한 반응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주제 묶음은 ‘힘 없는 두려움, 고통스러움, 처참함을 느낌’,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항의함’, ‘자신의 무력함을 호소함’,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음을 호소함’, ‘자살생각을 가짐’이라는 5개로 나타났다.

1) 힘 없는 두려움, 고통스러움, 처참함을 느낌

이 주제는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옴(3:24-26, 16:6)’, ‘고통이 저울에 달 수 없이 무겁게 다가와 탄식함(6:1-3, 7:1-6)’, ‘잠자리에서마저도 악몽과 환상에 시달림(7:13-14)’,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도록 고통스럽고 처참함(16:15-16)’, ‘고난 이전의 행복했던 시간을 그리워함(29:1-25)’이라는 5개의 의미단위로 구성된다. 욱은 심리적으로 지속적인 두려움과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의 무게로 탄식하며 잠자리에서 마저도 악몽과 환상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 또한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도록 고통스럽고 처참하다고 부르짖으면서 삶의 괴로움을 드러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난 이전의 행복했던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등 부정적인 마음 상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욱의 고통은 Shneidman의 자살이론(Joiner, 2005)에서 대표적인 자살

의 원인으로 지적인 좌절된 심리적 요구(thwarted psychological needs)이며 참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일반적인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말하는 psychache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욕의 미시체계 내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질서와 균형이 파괴된 상태로 위기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2)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항의함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원망함(3:20-23)’,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고난의 원인이 있음을 토로함(6:5-7)’,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에 무죄함을 주장하며 심판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따지고 항의함(7:34, 31:1-3, 9:23-26, 10:1-9)’, ‘분하고 괴로워 하나님께 화를 냄(7:11-12)’,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고 항의함(10:13-17)’, ‘선을 베풀었으나 고난이 닥침을 탄식함(30:25-31)’의 6개의 의미단위로 구성된다. 고난으로 인해 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것마저 원망하며 반드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고난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토로한다. 그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므로 무죄이고, 자신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계속 따지고 항의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욕은 급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 주심에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고 항의한다. 이에도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자 욕은 선을 베풀었으나 고난이 닥친 것에 대해서 탄식한다. 이러한 욕의 미시체계의 상태는 Shneidman이 설명한 자살자의 10가지 공통점 중 ‘해답을 구하는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무의식 속의 공격적 욕구가 강해져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자신의 무력함을 호소함

이 주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음(9:1-12)',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지만 불가능함을 탄식함(9:32-33)', '하나님께서 채찍을 거두시기를 바라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호소함(9:34-35)', '한낱 바람 같은 생명임을 눈물로 호소함(7:7-10)', '하소연을 들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좌절함(9:13-20)',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음(6:11-12)'이라는 6개의 의미단위로 구성된다. 욕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분 앞에서 감히 아무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들며 친구들에게 반박한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과의 논쟁이 불가능함을 탄식하면서 중재자를 갈망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의 채찍을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자신의 생명은 한낱 바람 같음을 눈물로 호소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하나님께 좌절하며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고 탄원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욕에게 Beck이 지적한 자살의 가장 주요한 요인(Joiner, 2005)인 희망이 없음을 호소하기에 이른다. 미시체계 내에서 불균형 그리고 부정성의 증가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욕은 거시체계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도하나 좌절하고 만다. 따라서 욕의 위기는 더 가중되고 있다.

4)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음을 호소함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음을 호소함'이라는 주제는 그 하위로 '필요할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탄식함(6:13)', '친구들의 괴롭힘에 분노하며 친구들에게 배신감을 느낌(6:14-15, 19:2-5)', '사람들의 경멸, 조롱과 학대를 탄식함(16:10, 30:1-14)', '사회문화적으로 공격받음을 탄식함(17:6-10)', '타인은 물론 가족마저도 등을 돌리고 낯선 사람이 되어버림을 탄식함(19:13-19)'이라는 다섯 개의 의미단위로 구성된다. 욕은 주변 사람들이 사회문화

적이며,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욱을 외면하고 공격함에 탄식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욱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적 벽과 종교적 벽에 대한 내용이 욱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욱과 친구들의 3주기 대화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소외⁸⁾를 임옥화(2010)의 연구에서는 욱에게 자신이 받은 재앙들을 통해 공동체 생활의 종말을 의미하는 사회적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체계로부터의 사회적 소외는 안정상태에 위기를 맞은 욱이라는 개인체계를 소멸로 치닫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욱을 더욱 더 회복하기 힘든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욱의 미시체계뿐만 아니라 중간체계와 거시체계 모두에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욱의 고통 속에는 욱 주변의 전반적인 사회적 붕괴에 이르게 된 사회적 네트워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로 부터의 점진적인 소외(progressive alienation)가 포함되어 있다(Salakpi, 2009). 또한 여기에서 눈 여겨 볼 것은 욱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물리적·정신적 고난이 항상 하나님의 처벌은 아니며 사회에서 고난 받는 자가 겪는 사회적 거절은 윤리적인 잘못이며, 불공평한 것(Salakpi, 2009)일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5) 자살생각을 가짐

고난으로 인해 욱의 심리적 상태는 '자살생각을 가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주제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태어났음을 한탄함(10:18-19)', '스울⁹⁾을 찬양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호소함(3:17-19, 7:15-16)', '유일한

8) 사회적 소외(social alienation)는 개인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형태의 소외에 대해서 사용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며 이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말한다(Salakpi, 2009).

희망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함(6:16-20, 17:11-16)', '에너지가 없음(6:11-12, 17:1)'이라는 4개의 의미단위로 나타난다. 욕의 미시체계에서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태어났음을 한탄하고 스올을 찬양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호소하고 유일한 희망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살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살아갈 기력이 더 이상 없음을 호소하며 자신의 에너지가 소실되었음을 드러낸다.

선행연구에서 욕의 심리적 증상을 살펴보면, 김재연(2007)과 Carlin(2007)은 이를 우울증으로 보았고, Horton(2011)은 발달적 외상으로, Haughn(2009)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Roy(1991)는 인간 발달적 관점에서 애도의 증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임옥화(2010)는 욕의 상태를 정신분석이론에서 말하는 방어기제인 퇴행과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한편 백의 인지치료이론(하정미 외, 2009)에 의하면 우울한 자는 인지삼제, 즉 자신과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욕기3장에서 욕은 고난 속에서 그 이유와 의미를 찾지 못하여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원망하고 있다. 자신의 힘든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였지만 주변 누구도 마음을 열고 욕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못하였다. 이는 욕 주변 누구도 로저스의 인간중심접근법(하정미 외, 2009)에서 강조하는 비심판적인 태도로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욕을 수용해주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욕이 자신을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하는 모습은 자살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욕의 자살생각은 Obach(1994; Pinder, 2007 재인용)와 Pinder(2007) 등

9) Sheol, 스올.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스올의 정확한 뜻은 알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무덤', '음부', '스올' 등으로 번역되며 죽은 영혼이 가는 곳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의 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 된다. Pinder(2007)에 의하면 욕의 죽음에 대한 소망은 사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죽음은 고통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으로의 도피로 표현하였다. 실제로 자살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마음에 대한 경감이나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것으로 자살생각을 설명한다(Michel 외, 2012).

또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무의식 속에서 다른 모든 방어기제가 실패하는 경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Horton, 2011). 욕도 미시체계인 무의식 속에서 다른 방어기제가 실패하고 자아가 그 스스로를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미움이나 공격성이 내면으로 향하여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위기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Menninger(1966)의 이론으로 보면 자살행위를 일으키는 정신역동적인 동기 중 절망, 공포, 피곤, 낙망, 고통, 질병 등에 의해 촉발되는 “죽고 싶은 의도(the wish to die)”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사회체계이론으로 볼 때 마음의 에너지가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하나님으로부터도 아직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외부의 물리적·정서적·영적 에너지 투입이 고갈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욕이 갖고 있던 기존의 윤리나 가치관으로 해석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무질서한 생각과 이에 따른 무질서한 감정의 상태로 엔트로피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체계가 소멸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욕의 자살생각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욕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증상들이 넥엔트로피로 바뀌지 못하고 일정기간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살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욕이 넥엔트로피의 과정으로 나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지와 격려 물리적 도움,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 투입을 위한 기도와 신앙적 지원과 약물치료와 상담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3. 세 친구들의 개입: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심판적 태도

위기에 처한 욕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함께 있어줌으로써 욕을 위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욕에게 개입하면서부터 색안경을 끼고 욕을 바라보며 심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여기서 드러난 네 가지 주제는 ‘친구들이 함께 있어줌’, ‘질책과 비난을 통한 직면’, ‘심판적인 태도와 정죄하는 해석’, ‘성급한 충고’로 나타난다.

1) 친구들이 함께 있어줌

이 주제는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찾아옴(2:11)’, ‘함께 슬퍼함(2:12)’, ‘침묵하며 함께 있어줌(2:13)’이라는 세 가지 의미단위로 나타난다. 친구들은 욕의 재앙에 관한 소식을 듣고 위로하고자 왔고, 처음에는 함께 슬퍼하며 울고 침묵하며 곁에 있어주었다. 사회복지 실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친구들의 행동은 위기에 처한 욕의 어려움에 온정과 공감을 표현하고 함께하며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표현하는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기법이며 동시에 절충주의적 실천개입에서의 공통요소¹⁰⁾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의 라포(신뢰관계) 형성이 개입의 가장 일차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는 적절한 초기개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친구들의 개입은 안정상태에서 위협을 받고 자살생각에까지 이르러있는 위기에 처한 욕이라는 개인체계에

10) 공통요소는 어떤 특정한 기술에 한정되지 않는 치료세팅에서의 차원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상담 접근법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말하며(Lin, 2004), 여기에는 재보증, 신뢰, 공감과 같은 지지요소와 인지학습, 충고, 정서적인 경험, 피드백과 같은 학습요소, 그리고 행동적 규칙, 인지적인 숙달, 현실검증, 새로운 행동의 실천과 같은 세 가지 종류가 Lambert와 Bergin(1994)에 의해서 정의 되었다(이인숙 · 하정미, 2009 재인용). 또한 Rogers(1957)는 온정, 공감,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인 관심을 상담개입에 있어서 중요한 공통요소로 강조하였다(Hill and Corbett, 1993; 이인숙 · 하정미, 2009 재인용).

외부의 상위체계로부터의 정적인 에너지가 유입되어 욕이 다음 단계에서 입을 열어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볼 수 있다.

2) 질책과 비난을 통한 직면

본 주제는 '비유를 통해 자신의 고통에 낙담하는 욕을 질책함(4:3-5)', '조상들의 가르침을 통해 권선징악을 주장함(8:7-22)', '자신의 영적경험을 통해 인간의 허물 많음을 일깨워주고자 함(4:16-21)', '죄가 없음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항의하는 욕을 책망함(8:2-6, 11:2-6)', '하나님 앞에서 욕의 무지함과 인간의 죄 많음을 지적함(11:7-8, 11:12, 22:2-3, 25:2-5)', '욕의 말을 궤변으로 치부하고 질책, 비난함(4:6-7, 8:2-4, 15:2-16, 18:2-4, 22:12-20)'이라는 6가지 의미단위로 구성된다. 욕과 함께 있어줌으로써 욕을 지지하고 공감했던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비유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던 욕이 막상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에 낙담하게 된 것을 질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자신의 무죄함을 철회하지 않자 자신의 영적인 경험까지 언급하며 인간의 허물 많음을 일깨워 욕이 죄를 인정케 하려고 논쟁한다. 욕이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항의하기에 이르자 친구들은 그를 책망하며 욕의 모든 말을 궤변으로 치부하고 점점 더 강한 어조로 질책하고 비난한다.

이러한 친구들의 개입은 사회복지 실천적으로는 직면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유의할 점은 직면의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수용능력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어투는 부드럽고 비난하는 어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조미숙 · 김상아 · 설연옥 · 이우연 · 하정미, 2010). 그러나 그들의 개입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무시되는 부적절한 직면기법이 사용됨으로써 위기에 처한 욕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켜 욕의 안정상태에 상위체계로부터의 더 큰 위험요소가 되

고 말았다.

3) 심판적인 태도와 정죄하는 해석

본 주제는 '욥의 상황을 인과응보로 해석하여 심판적인 태도로 접근함(4:8-11, 5:1-7, 15:17-35, 18:5-21)',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 받는 것이라 단정 지어 해석함(20:3-29, 22:4-11)'이라는 2개의 의미단위로 구성된다. 여기서 욥의 친구들이 개입의 형태로 나타내는 전통적 신앙관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욥의 행동과 더불어 욥기 전체에 흐름으로서 긴장감을 형성할 뿐 아니라 (Clines, 2004), 더 나아가 욥을 더욱 괴롭게 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한다. 실천적 개입에 있어서 해석기법은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통찰하게 함으로써 치료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에, 욥 체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강진선(1998)과 임옥화(2010)도 욥의 세 친구들이 결국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였고, 강진선(1998)은 특히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인 소발의 경우는 사랑 없는 왜곡된 질책이라고 설명하였다.

4) 성급한 충고

이 주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도움청할 것을 조언함(5:8-25)',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해주실 것임을 충고함(11:9-19, 22:21-30)', '회개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름을 경고함(11:20)'이라는 3개의 의미단위로 나타난다. 욥이 자신들의 비난을 수용하지 않자 급기야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조언하며 회개할 것을 매우 강하고 신랄한 어조로 충고한다. 이러한 충고 또한 개입의 공통요소 중 학습적 요소로 볼 수 있지만 부적절하고 감정조절에 실패한 친구들의 충고는 역효과를 낳으며 욥에게 더 큰 좌절과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친구들의 개입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심판적인 태도로 일관된 것이었으며 표면적으로만 접근하여 그 고난의 진정한 원인을 무시함으로써 고통을 숨기려하고 고통 받는 자와는 거리가 먼 거짓위로(Roxberg 외, 2011)였다. 돌봄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고통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며 진정한 위로는 고통을 덜어주는 위로이며 이것은 고통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Roxberg 외, 2011).

친구들의 개입은 사회복지 실천적 관점에서 원조관계의 기본 원칙들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원조관계에서 첫 번째 원칙은 개별화의 원칙¹¹⁾이나 친구들은 욕의 상황을 일반적인 경우와 구분하여 개별화하지 못하여 억지로 해석하고 비난하였다. 또한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상담사가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여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욕의 친구들은 이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수용의 원칙도 위배하여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지적한 심판적 태도로 이것은 사회복지실천의 비심판적인 태도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이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실천적 개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감과 이해에의 실패로 연결되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개입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더욱이 이러한 질책과 비난은 자살생각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자살시도의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들은 자살시도 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타인으로부터 창피함을 느낀 것으로 보고되며 이것은 무가치감과 자존감의 상실을 초래하며 한 인간으로써의 가치저하를 경험하게 한다

11) 개별화의 원칙은 모든 클라이언트는 소유한 문제의 성격과 상관없이, 개별적 존재로 인정되어야 하며, 개별 클라이언트는 고유한 욕구, 열망, 장점과 약점을 가진 개인으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조미숙 외, 2010).

(Michel 외, 2012).

4. 세 친구들의 개입이 욕에게 미친 영향: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터짐

친구들의 개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터짐’이라는 주제 묶음으로 드러났으며 이것은 다시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음에 대한 속상함’, ‘친구들의 개입에 반박함’, ‘경청과 수용을 요구함’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뉜다.

1)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음에 대한 속상함

본 주제는 ‘친구들에게 야속하고 실망스럽게 느낌(6:21-30)’, ‘친구들의 위로가 오히려 괴롭힘이 됨(16:2-5, 19:21-22)’,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답답함(19:23-23)’으로 구성된다. 욕은 친구들의 심판적인 태도에 대해 야속하고 실망스러운 감정을 매우 강한 어조로 쏟아내었으며 그들의 위로가 오히려 괴롭힘이 된다고 처절하게 하소연하였다. 또한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답답함을 강하게 호소하여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2) 친구들의 개입에 반박함

이 주제는 ‘친구들의 비난에 반박함(12:2-12)’, ‘친구들을 돌팔이 의사로 지칭함(13:4-12)’, ‘권선징악적 해석을 반박함(21:7-26, 21:29-33)’, ‘친구들의 악의를 지적함(19:28-29, 21:27, 21:34)’, ‘친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지적함(26:2-4, 27:8-23)’,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음을 일깨우고자 함(26:5-14, 28:1-28)’, ‘자신의 결백함을 굽히지 않음(27:2-7)’

이라는 7개의 의미단위로 나타난다. 욥은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면서 악한 자가 변영하기도 한다는 예를 들어 친구들의 비난과 권선징악적 해석에 반박하며 심지어 그들을 돌팔이의사로 칭한다. 이러한 표현은 친구들의 개입이 잘못된 것임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친구들이 악의를 갖고 있다고 하며 그들의 교만함을 비꼬고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일깨우고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음과 자신의 결백함을 굽히지 않는다.

욥은 “공평한 세상에 대한 가설”을 부정하고 있으며(Barry, 2007) 욥기 전체에 걸쳐서 욥의 주장이 친구들의 주장보다 훨씬 더 우세하며 저자는 욥의 의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욥기에서 친구들의 말은 275절, 욥의 대답은 400절로 구성되어 욥의 대답에 훨씬 많은 강조를 두고 있음을(Badalamenti, 2008) 뒷받침하고 있다.

3) 경청과 수용을 요구함

이 주제는 다시 ‘경청해 줄 것을 요구함(21:2-3)’,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요구함(21:4-6)’으로 나뉜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라고 하며 귀를 기울여 주는 것만이 위로가 되며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호소하였다. 경청¹²⁾과 수용은 돌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며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필수적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험과 편견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참을성과 비심판적 태도로 색안경을 벗어 버리고 고통 받는 사람의 자리에서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것

12) 경청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자기중심적인 듣기를 지양하고 상대중심의 듣기를 하는 것이다. 또한 말하는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 존중이 담겨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이면에 흐르는 느낌이나 감정을 짐작하여 반영시켜주는 듣기 기술이다(조미숙 외, 2010).

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친구들의 잘못된 개입은 욕이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터진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고 욕은 더 이상 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다. 이것은 욕 체계가 외부의 상위체계와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에너지가 소실되고 더욱 심각한 엔트로피의 상태에 빠져 안정상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욕의 강점: 영적 레질리언스

엔트로피의 위기 속에서 욕은 강한 영성, 즉 영적 레질리언스를 드러낸다. 임상적 사회복지 실천에서 영성은 좀 더 미시적인 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개인과 가족의 보호요인, 나아가서는 회복과 탄력의 본질로서 영성을 이해하는 것이다(이혜숙, 2009). 욕의 영적 레질리언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의 정직함에 대한 신념', '하나님께 계속 호소함'이라는 주제로 나타난다.

1)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주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죄짓지 않음(1:20-22, 2:10)',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음(12:13-25)', '구원자 살아계심을 확신함(19:25)',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구함(23:2-5, 23:8-9)',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알고 계심을 확신함(31:4-6)', '무죄를 선언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23:6-7, 23:10)',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24:1-25)'이라는 7개의 의미단위로 구분된다. 욕의 믿음은 극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그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자신을 도와주실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확신함을 통해 잘 드러난다. 또한 욕은 전지전능하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며 심판의 때를 기다리

신다고 주장한다.

2) 자신의 정직함에 대한 신념

이 주제는 ‘자신도 친구들만큼은 지혜롭다고 생각함(13:1-2)’, ‘자신의 무죄하고 진실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16:17, 23:11-12)’으로 구성된다. 욥은 친구들을 비롯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신의 무죄와 진실함을 고수하는데, 이는 욥이 자존감이 높고 자아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하나님께 계속 호소함

이 주제는 ‘고난을 멈추어달라고 호소함(10:20-21, 13:20-21)’,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달라 호소함(13:3, 13:13-19)’, ‘죄명을 알려달라고 간구함(13:23-28)’,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인 자신의 허물을 덮어줄 것을 간청함(14:1-12, 14:13-22)’, ‘직접 뵙고 재판을 받고자 함(17:3-4, 19:26-27, 31:40)’이라는 다섯 가지의 의미단위로 구성된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의 정직함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고난을 멈추어주시길 것과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호소한다. 또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이므로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시길 간청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재판받겠다고 탄원하면서 자신의 말을 마친다.

욥이 고난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욥에게는 영적 레질리언스가 있었다는 것인데, 욥의 영적 레질리언스는 바로 욥의 영성(spirituality)이었다. 욥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는 것이었고, 고난을 극복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Green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강한 신뢰의 표현을 강조하여(임옥화, 2010 재인용) 이를 뒷받침한다.

욥은 절망과 소망사이에서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균형을 완전히 잃고 있지는 않다(임옥화, 2010). Malbim에 의하면 욥은 선한자의 고통 받음과 악인의 번영에 관한 문제로 갈등하면서도 믿음 이상의 것 즉 모든 것이 공평하며 선하다는 것을 알길 원했으며 지식(knowledge)을 원했지만 결코 믿음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고 결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엄성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Aranoff, 2011). 한편 욥은 끝까지 자존감을 지키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여 친구들의 비난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따라서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욥의 탄력성이 드러난다. 히브리어로 욥(Iyyob)이라는 이름의 뜻이 “박해받는 자” 또는 “돌아오는 자”라고(강진선, 1998) 하는 것 또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욥의 강점은 그의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서 과거에 대한 애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데 있다(Hamutal, 2008). 투르니에는 그리스도인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힘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였다(임옥화, 2010). 또한 하나님은 솔직하고 진실한 탄식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표현하는 진실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남(임옥화, 2010)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욥은 자살생각에까지 이르는 엔트로피의 상태로 소멸의 위기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라는 레질리언스를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한다.

6. 고난을 거친 욕: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전인적으로 성장됨

영적 레질리언스를 바탕으로 고난을 거친 욕의 성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끝없는 지혜와 유일한 주권을 깨닫게 하심’, ‘잘못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 ‘회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주제는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38:1, 40:6)’, ‘욕을 일으켜서 답하도록 하심(38:3, 40:7)’으로 구성된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폭풍 가운데 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답하라고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욕의 간청을 들어주시어 욕은 고난 즉 폭풍 속에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욕의 기도예 대한 응답이며 욕의 영성이 한 차원 성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욕을 만나주셔서 욕이 옳음을 선언하심으로써 욕을 임파워먼트 해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은 엔트로피의 상태에 빠진 욕에게 큰 에너지를 공급하여 소생시키시는 것이며 곧 넥엔트로피로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위기 또는 고난은 종종 폭풍으로 표현된다. 욕의 고난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폭풍은 욕의 참을 수 없는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속에 인간이 볼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Luc, 2000). 욕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욕을 소멸시키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나타나셔서(Luc, 2000)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신다. 따라서 폭풍은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하나

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표현한다(Luc, 2000).

2) 하나님의 끝없는 지혜와 유일한 주권을 깨닫게 하심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38:4-9)’,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과 유일한 주권이심 깨닫게 하심(38:10-39:30)’, ‘교만함을 지적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투려한 욕을 꾸짖고 호통 치심(38:2, 40:2, 40:8-14)’, ‘하나님의 끝없는 지혜에 비해 인간은 나약하고 무능함을 지적하심(28장; 40:9-41:34)’이라는 네 개의 의미단위로 나타난다. 욕이 폭풍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욕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유일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세 친구들의 무지와 욕의 교만함, 인간의 무능함과 대비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다스림, 유일한 주권을 갖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욕의 친구들 보다 더 나은 상담자이심을 증명하셨고 주로 질문기법과 역설을 사용하여 욕이 자신의 경험을 재구조화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셨다(Carlin, 2007).

3) 잘못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

이 주제는 ‘세 친구의 옳지 못함을 지적하심(42:7-8)’, ‘친구들이 욕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명하심(42:8)’, ‘욕이 용서하면 하나님도 친구들을 용서하기로 하심(42:8)’이라는 세 개의 의미단위로 구성된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세 친구의 옳지 못함을 지적하셨고 친구들이 욕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시며 만일 욕이 친구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친구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친구들이 가지고 간 제물로 드린 번제

는 무지로 인한 죄를 씻었을 뿐 아니라 세친구와 욥과의 관계와 세친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시켰다. 드디어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인정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옹호와 지지를 통해 새 힘과 에너지를 얻고 친구들을 용서할 힘도 얻게 된다.

4) 회복과 성장

욥의 회복과 성장은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고백함(42:2)', '자신의 잘못과 악을 인정함(40:4-5)', '눈으로 주님을 뵈게 됨(42:4-5)', '진정으로 회개함(42:6)', '세 친구가 순종하고 욥이 용서함(42:9)', '욥의 재산을 두 배로 회복시켜주시심(42:10)', '욥에게 모든 주변 사람들이 돌아옴(42:11)', '욥이 변성하고 장수 함(42:12-17)' 이라는 8개의 의미단위로 구성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개입하심으로 욥은 자신의 잘못과 악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이어 눈으로 주님을 뵈게 됨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다. 한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욥은 친구들을 용서하기에 이르고 또 하나님은 욥의 재산을 두 배로 회복시켜 주셔서 욥은 이전보다 더욱 부유한 자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욥을 비난하며 등을 돌렸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욥에게 다시 돌아오고 결국 욥은 변성하고 장수를 누리는 큰 성장을 이루게 된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던 욥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 자신의 소망을 이룰 뿐 아니라 물질적 · 심리적 · 가정적 · 영적으로도 회복하고 성장하는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과 소망에는 결정적인 대답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지혜와 능력 절대적 주권을 받아들임으로서 삶의 근본적 상태와 인간에게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다(Roxberg 외, 2011). 결국 욥은 하나님의 임재와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많은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결국 욕은 영적 레질리언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엔트로피를 극복하고 다시 안정상태를 이루어 회복하고 성장하여 체계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

V. 결론 및 논의

이제는 마스크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 되어버린 자살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정죄의 대상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예방과 치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회에서 사회복지실천적 관점으로 자살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욕기에서 욕의 자살생각 극복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결과 92개의 의미는 22개의 주제로 정리되었고, 이는 다시 ‘뜻밖에 닥친 감당치 못할 고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심판적 태도’, ‘역장이 무너지고 속이 터짐’, ‘영적 레질리언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전인적으로 성장됨’이라는 6가지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 되었다. 이러한 내용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자살을 어느 한 이론으로 이해하려기보다는 자살에 대한 여러 이론들(Shneidman의 자살이론, 정신분석이론, 위기이론, 사회체계이론, 레질리언스 이론)을 통합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는 자살에 관한 여러 이론 가운데, 욕의 경우를 비교적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레질리언스 이론이었다. 욕이 자살의 유혹을 이기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욕의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적 관점에서 욕기를 살펴본 첫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고통이 저울에 달 수 없이 무겁게 다가와 탄식’ 하는 이들은 때때로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는 ‘해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인다(Shneidman, 1985). 해답이 없고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무력감을 느끼고, 자살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욕의 경우처럼 가족,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소외당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살생각에 이르게 된다(Joiner, 2005). 그러나 자살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할 때 한두 번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의 책임에 대해 질책하고 비난하는 태도일 것이다. 이러한 질책과 비난의 태도는 죄에 민감한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질책과 비난의 태도가 욕기에 나타난 것처럼 신명기신학(상선필벌)과 맞물려 나타날 때에 더욱 큰 파괴력을 가지게 되며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라고 조언 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임할 심판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된다.

사회복지실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청할 때, 일단 함께 있어주고 같이 슬퍼해 줌으로서 위로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부드러운 어투로 비난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손 잡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 클라이언트와의 원조관계는 형성되기가 불가능하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요소는 클라이언트와의 충분한 신뢰관계의 형성이며 이러한 치료적 동맹은 여러 심리치료모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치료결과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Michel 외, 2012). 비심판적인 태도는 사회복지실천적 개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살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거나 심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꺼리게 되어 문제를 자기 속에 숨김으로써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들은 대부분 낮은 자존감과 자기비

난의 경향을 갖고 있으므로 심판적인 태도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개입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Michel과 동료들(2012)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힘든 두 가지 과업 중 첫째 과업이 클라이언트를 고의적인 자해를 하기 위한 자기 이유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 보고 그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감적인 이해를 통해서만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자살이 그들에게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들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자살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자살생각의 발달과정을 개인적 삶의 맥락 속에서 사정하고 이해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위로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돌보는 자는 고통 받는 사람에게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옹졸처럼 저주하고 불평하는 행동을 할 때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허락해야 할 것이다(Roxberg 외, 2011).

한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욕이 자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영적 레질리언스 때문이었다. 욕은 신앙이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음을 확신하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Greene(2007)은 영성을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주요한 보호요인들 중 하나로 정의하였다. 하나님과 일치감을 갖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역경과 위기, 곤란에 처해 있을 때 더 많은 위로를 느낄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신감과 유능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강하다(이혜숙, 2009).

특히 영적 레질리언스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가끔씩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겨난다. 자살 생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고,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은 이들을 이해, 위로, 사랑으로 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의 과제는 비심판적이고 지

지적인 태도로 클라이언트에게 다가가서 '함께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자살생각을 가짐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하는 것이다. 만일 상담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잘 성립된다면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며 이러한 신비함은 기독교회의 돌봄을 다른 종류의 돌봄과는 차별화 시켜주는 독특한 것이 되게 할 것이다(Carlin, 2007). 또한 목회자는 읊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돕는 매니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Hamman, 2000; Carlin, 2007 재인용).

따라서 교회사회사업의 실천현장에서 자살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개입할 때에는 비심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반성과 전문성의 함양을 위한 교회사회사업 전문가들을 위한 슈퍼비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그들의 극심한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이 행동의 변화를 이루고 인생의 방향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초로 교회사회사업의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안해보면 첫째,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읊처의 묵상과 빌립보서 2장 3절과 같은 성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며 고난을 겪는 자들을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생각이나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비심판적인 태도와 공감적인 반응으로 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고난을 겪으면서 엔트르피 상태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레질리언스를 강화하여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치유적인 설교와 성경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자살생각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

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에너지와 자원을 제공하여 엔트로피상태에 빠진 그들이 넥엔트로피 상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 후속적 연구에서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삼아서 교회에서 자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교회사회사업의 구체적 실천기법들에 대한 보다 다차원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유진. 2004. “한국 여성 노인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 49-83.
- 강진선. 1998. 『욥기-다니엘서 요약강해』.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김기태. 1998. 『위기개입론: 일상생활의 위기와 극복방법』. 서울: 대왕사.
- 김옥진. 2011. “욥기를 통해 본 기독교 상담에서의 하버마스 의사소통 합리성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 22: 35-55.
- 김재연. 2007. “기독교 신앙인의 우울현상과 심리 및 신앙적 대응에 관한 연구-청년들을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선 역. 1994. 『자살론』. 파주: 청아출판사. Durkheim, Emile. 1987. Le Suicide.
- 이인숙 · 하정미. 2009. “정신보건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절충주의 상담에 대한 내용분석연구-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5(2): 79-106.
- 이혜숙. 2009. “영성적 관점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이해와 적용”. 『교회사회사업』 11: 7-37.
- 임옥화. 2010.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치유적 대화: 폴 투르니에의 인격적 대화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숙 · 김상아 · 설연옥 · 이우연 · 하정미. 2010. 『최신 사회복지실천론』. 파주: 문예미디어.
- 천정웅 · 김미옥 · 최명민 · 노혜련 · 이용교. 2001. 『강점관점 청소년개발 레질리언스』. 서울: 신정.
- 통계청. 2010. “2010년 사망원인통계”. www.kostat.go.kr
- 하정미 · 이윤수 · 설연옥 · 김미경. 2009.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파주: 공동체.
- 한국자살예방협회 편. 2009. 『자살의 이해와 예방』. 서울: 학지사.
- Aranoff, Gerald. 2011. “Malbim on Job Chapter 42: The Happy Ending”. Jewish Bible Quarterly 39(4): 251-257.
- Badalamenti, Anthony F. 2008. “Job’s Story and Family Health”. J Relig Health DOI 10.1007/s 10943-008-9190-1.
- Barry, William A., S. J. 2007. “Is This Any Way to Treat Your Friends?”. Human Development 28(4): 17-21.
- Brooks R., and Goldstein, S. 2001. Raising resilient children: Fostering strength, hope

- and optimism in our children. New York: Contemporary books.
- Carlin, Nathan, 2007. "The blood of Job and Male Melancholia: A Bizarre Story about Hating Mother God and the Maternal Jesus, Featuring Mel Gibson". *Pastoral Psychol* 56: 121-141.
- Greene, Roberta R. 2007. *Social work practice: A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 Belmont, CA: Thomson Brooks/Cole.
- Hamutal Bar-Yosef, 2008. "A Culture of Endless Mourning". *Azure summer* 5768: 36-57.
- Haughn, Clifford and Gonsiorek, John C. 2009. "The Book of Job: Implications for Construct Validit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iagnostic Criteria".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2(8): 833-845.
- Hoff, Lee Ann, 1995. *People In Crisis: Understanding and Helping* Fourth Edi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Horton, Simon, 2011. "Job and the Traumatized Psyche: A Study of Transformation". Pacifica Graduate Institute,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s of Arts in Counseling.
- Joiner, Thomas.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Harvard University Press.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2.
- Luc, Alex. 2000. "Storm and the Message of Job".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87: 111-123.
- Maris, Ronald W., Alan L. Berman, and Morton M. Silverman. 2000. *Comprehensive Textbook of Suicidolog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ayring, Philipp. 2000.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Forum Qualitative Sozialforschung /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1(2) Art. 20.
- Michel, K., D. Jobes, A.A. Leenaars, J.T. Maltsberger, P. Dey, L. Valach, R. Young. 2012. "Meeting the Suicidal Person". <http://www.aeschiconference.unibe.ch>
- Menninger, K. A. 1966. "Purposive Accidents as an Expression of Self-Destructive Tenden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17: 6-16.
- Norcross, J. C. 2005. "A Primer on Psychotherapy Integration". pp. 3-23. in *Handbook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edited by Norcross, J. C. and M. R.

- Goldfri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rlin, J. M. and Wayne A. Chess, 1997.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Social Syatems Theory, Third Edition.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Prasad, B. Devi, 2008. "Content Analysis- A Method in Social Science Research", pp. 173-193, in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edited by Lal Das, D. K and V. Bhaskaran, New Delhi: Rawat.
- Pinder, Aron, 2007. "Job' s Perspectives on Death" . Jewish Bible Quarterly 35(2): 76-84.
- Roxberg, Asa, David Brunt, Mikael Rask, Antonio Barbosa da Silva, 2011. "Where Can I find Consolation?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Meaning of Consolation as Experienced by Job in the Book of Job in the Hebrew Bible" . J Relig Health DOI 10.1007/s 10943-011-9459-7.
- Roy, Arlin, 1991. "The Book of Job: A Grief and Human Development Interpretation" ,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30(2): 149-159.
- Salakpi, Alexander G. K. 2009. "Social Alienation as a Consequence of Human Suffering in the Book of Job: A Study of Job 19:13-22". The School of Theology and Religious Studies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Dissertation.
- Shneidman, E. S. 1985. Definition of Suicide. New York: Harper and Row.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Guilford.

Abstract

Overcoming Suicidal Ideation in Hardships through Spiritual Resilience: Content Analysis of the Book of Job in Social Work Perspective

Ha, Jung-Mi (Professor of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Choi, Jung-Hwa (Professor of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Song, Young-Ji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churches help Christians in hardships, suffering from thoughts of suicide, by analyzing Job's spiritual resilience in terms of Social Work practice. The Book of Job has been analyzed by using content analysis research method in integralistic social work approach.

As the results, 92 formulated meanings, 22 themes, and 6 theme clusters have been revealed: 'unpredicted and unbearable hardship', 'deadly painful', 'judgemental attitude holding a biased view', 'feeling upset and outburst', 'spiritual resilience', 'growing up after meeting God in the storm'. From this analysis, spiritual resilience is found to be the strength of Job to overcome his extreme hardships, even suicidal ideation. This study may help find a practical way to prevent Christians suicide in Church Social Work field.

Key Words: suicidal ideation, resilience, spirituality, the book of Job, content analysis

투고일: 2012. 9. 9 / 심사완료일: 2012. 9. 23 / 게재확정일: 2012. 9. 30